
 인천광역시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small>all ways INCHEON</small> <small>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small>
	배포일자	2022년 7월 4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료사업팀장 정혜원 ☎ 440-2736 • 담당자 이다인 ☎ 440-273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신청자 ‘아DEM’ 씨의 출산

- 시·관광공사·지역의료기관, ‘무료 나눔의료 사업’ 실시,
- 의료사각지대 외국인환자 치료위해 ... 2018년부터 총 16명 치료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소외계층 외국인환자를 위한 ‘2022년 무료 나눔의료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치료·수술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공사,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명의 외국인환자를 치료해 인천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첫 나눔의료 수혜자는 지난달 25일 서울여성병원에서 분만한 에티오피아 출신 아DEM(가명, 28세, 여)씨가 선정됐다.

아DEM씨는 2017년 한국으로 왔으나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난민 신청자’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출산비용 등 막대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소식을 한국이주인권센터로부터 전달받았고,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을 기념해 시와 공사, 서울여성병원이 뜻을 모아 아템씨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와 공사는 서울여성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나눔의료 사업에 참여할 4개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정해 대상자를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해외 낙후지역의 현지 환자를 초청해 무료 치료·수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나눔의료 특성상 중증환자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와 환자 초청비가 발생하므로 의료기관당 지원금을 지난해에 비해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나눔의료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인천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홍보” 함은 물론 “해외 국가와 우호관계를 형성해 인천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관련사진>

